2024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연간보고서

교황청 재단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의 순례자'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희년에,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글을 쓰면서, 「2024 ACN 연간 보고서」를 통해 이 희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관대함 덕분에 ACN은 박해, 전쟁, 극심한 가난 등 일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수십만 명의 형제자매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름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의 「ACN 연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37개국 지역 교회의 필요에 따라 2024년 교황청재단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이 지원한 다양한 유형의 원조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원조사업의 중심에는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 돕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도 함께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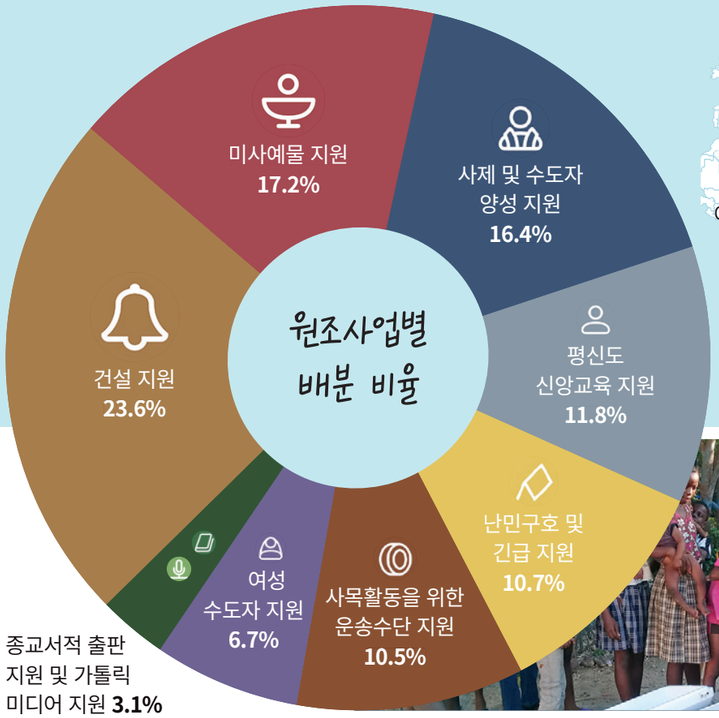
너그러우신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고통받는 교회의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 또한 희망의 순례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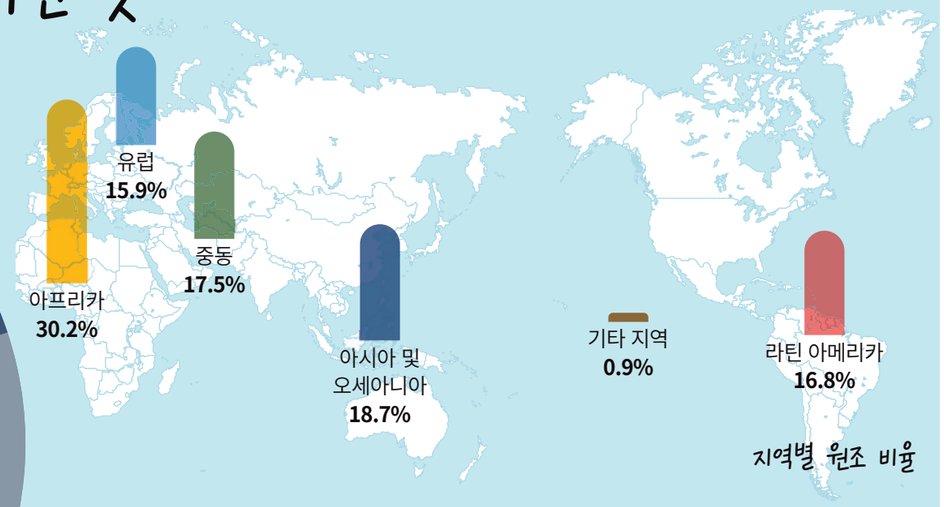
ACN 수석대표 레지나 린치 Regina Lynch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발행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 **전화** 02-796-644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 **팩스** 02-796-6439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459234 | **예금주**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이 전해진 곳





2024년 한 해 동안 ACN은 5,335건의 원조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교구, 수도회 사제 또는 신학교에서 신학생 양성을 맡고 있는 신부들을 위한 미사예물 지원 사업 97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는 많은 사제는 이러한 지원이 없이는 사목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ACN의 활동은 전쟁 지역과 박해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목적 돌봄과 심리 치료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테러가 확산되어, 폭력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가중된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 세계 237개국에서 모금 활동을 위한 지부 운영
- 전 세계 35만 8,195명의 후원자
- 기부, 유산 증여 등을 통한 총 수입 139,261,868유로(약 2,050억 원)
- 전 세계 137개국의 ACN 사업 협력 기관을 통해 5,335건의 원조사업 지원
- 후원금의 79.8% 사목활동 연계 지출

미사예물 지원 1,836,591대

2024년에는 약 180만 대가 넘는 미사가 ACN의 지원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평균 17초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ACN 후원자분들의 기부와 지향으로 미사가 거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42,252명의 사제가(전 세계 사제 10명 중 1명) ACN의 미사예물 지원으로 사목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ACN 역대 최고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성 수도자 지원 867건

전 세계 여성 수도자들 중 약 6,030명이 ACN으로부터 생활 및 사도직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청원자와 수련자들의 양성과정(직업 훈련 포함)은 물론 수도원 신축 및 재보수 공사,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장비(재봉틀, 제빵기, 차량 등)구입, 피정과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 수도자 지원은 아프리카(298건)와 아시아(282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신학생 지원 9,961명

2024년에는 전 세계 사제 지망생 11명 중 1명이 ACN의 양성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전 세계 신학생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아프리카(5,305명)가 가장 많았고, 라틴 아메리카(1,824명), 아시아(1,752명), 유럽(1,080명-우크라이나에서만 700명 이상 포함) 순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평신도 신앙 교육과 교리교사 양성을 위한 종교서적 지원 80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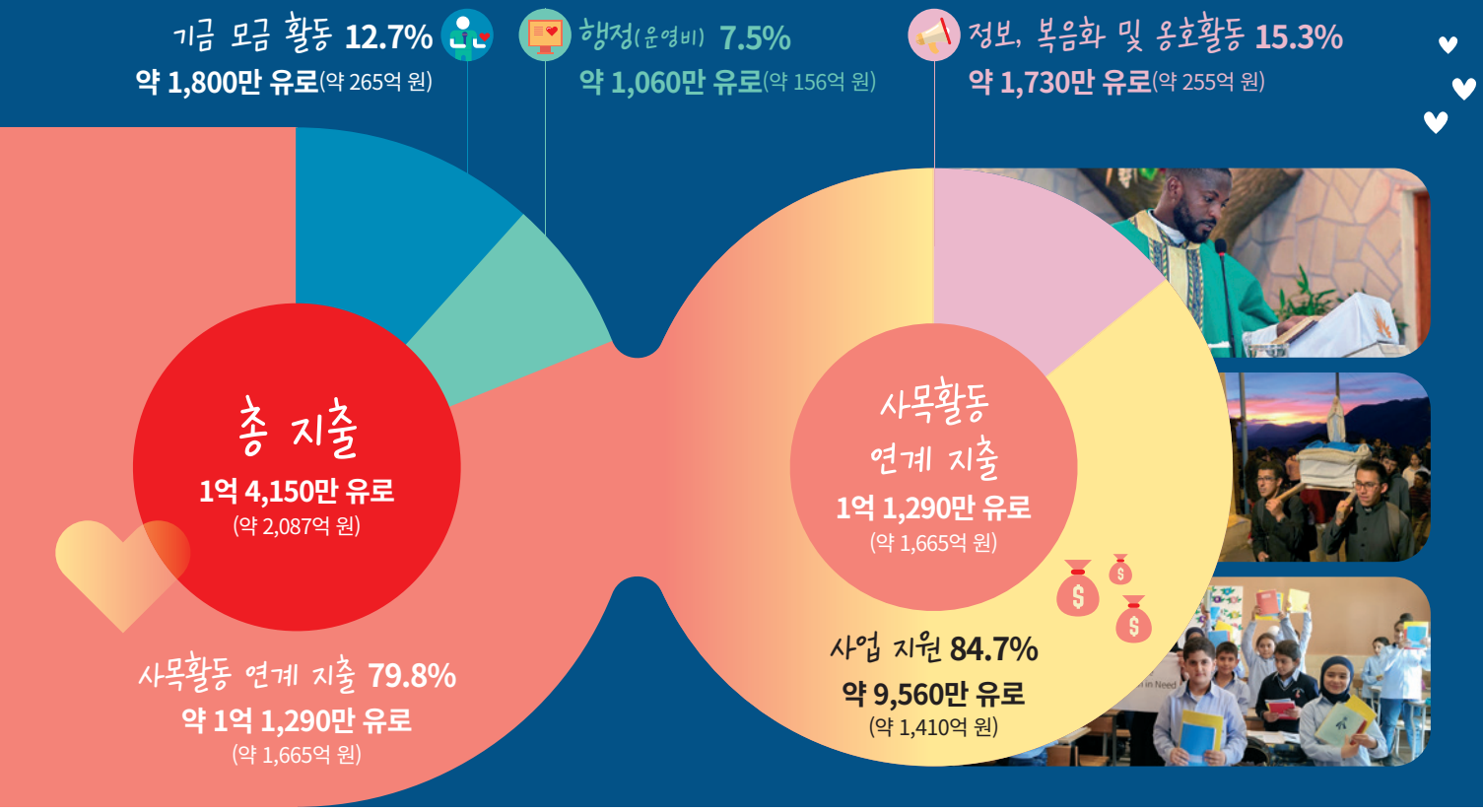
평신도 신앙교육과 교리교사 양성을 위해 106건의 종교 서적과 성경 출판 및 보급 사업에 호의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약 844,200권의 종교 서적이 배포된 가운데,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에 지원되었습니다.

건설 지원 755건

2024년에도 성당과 경당, 수도원, 신학교, 사제관, 사목 센터의 건축과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이 건설지원은 전체 사업지원에서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사목활동을 위한 운송수단 지원 1,141건

ACN은 자동차 474대, 오토바이 264대, 자전거 388대, 버스 3대, 트럭 1대, 배 11척을 구입하여 외딴 오지 지역의 사목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관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후원자 여러분은 전 세계 고통받는 교회에 다시 한 번 마음을 활짝 열어 약 1억 3,930만 유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137개국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30.2%의 비중으로 다시 한 번 사업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수의 사제와 수도 성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폭력의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지원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 번 ACN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일 국가였습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2,500만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전쟁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제와 여성 수도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신학생 양성지원, 운송수단과 난방을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에 대한 지원은 프로젝트 지출의 15.9%를 차지합니다.

그 나라에서 가톨릭이 소수 종교로 차별을 받거나 심지어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 아시아의 경우 18.7%(오세아니아 0.9% 포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파키스탄, 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중동(17.5%)에서는 특히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에서 무력 분쟁이 격화된 후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광범위한 긴급 구호를 통해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19.8%)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농촌 이탈, 이주, 종파, 반성직자 정부 등이 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입니다. ACN의 사업지원은 16.8%였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천 명의 사제, 수녀, 평신도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

Fr. Kisok John Pak

• ACN 연간보고서는 PwC의 감사와 검토를 받았습니다. • 환율: 1유로=1,475.05 적용 (2024년 서울외국환중개 평균 환율 기준)